

여대생 헤어스타일 분석

-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졸업앨범사진을 중심으로 -

박수진* · 박길순⁺ · 김서연**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Analysis on the Hairstyl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 Centering around Commencement Albums from 1980 to 2003 -

Su-Jin Park* · Kil-Soon Park⁺ · Seo-You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4. 8. 2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hairstyle and the fashion trend of hairstyle in the environment where it is possible to change one's hairstyle easily and display oneself in various ways and the interest in hairstyle is increasing. To examine the change of real university girls' hairstyle, I selected commencement pictures of Chungnam University as material. As a method of analysis, I compared and analyzed each time period's fashion trend and the change of real university girls' hairstyle after abstracting formative element of hairstyle on the basis of preceding studies on hairstyle and measuring frequency by element of each time period.

Analyzing university girls' pictures showed that many of them had curls when various perms appeared and majority of them had straight style when straight perm and magic iron appeared. When products of hairstyling were on the market and globalization changed sense of beauty, it was highly popular to set up forelock with hairstyling products. In a pluralistic social environment, desire for color aspect other than formative aspect increased. As various hairdyes were developed, hairdyeing was generalized and university girls came to accept it as natural.

Fashion trend of each time period and university girls' hairstyle showed generally similar trend. In mid 1980s, curl was popular, and, in late 1980s, straight style and setting up forelock with hairstyling products were on the increase. In early 1990s, the emergence of coating perm which combined perm and hairdyeing increased hairdyeing. In late 1990s, straight style was popular and layers expressed naturalness. In early 2000s, university girls showed off their long hair in various ways and hairdyeing drastically increased.

Key words : hair style(머리모양), woman student(여대생)

I.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복식은 항상 인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패션이나 외모 등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의복 외에도 머리장식이나 메이크업, 악세사리 등 모든 장식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복식은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은 의복과 함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시 되어온 부위 중 하나로서 그 시대의복의 형태와 다양한 미적 요소를 가지고 여러 세기 동안 복식의 한 분야로서 많은 흥미와 변화를 주며 변천되어 왔다.

헤어스타일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식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의복보다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연출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자신의 개성표현과 유행에 대한 인식증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더욱 머리치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복식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거나²⁾³⁾⁴⁾ 단순히 문헌을 통해 변천양상을 고찰하고⁵⁾⁶⁾⁷⁾⁸⁾⁹⁾ 패션과의 관계를 분석한¹⁰⁾¹¹⁾¹²⁾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최근 들어 헤어스타일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문헌이나 잡지 사진을 통한 연구가 아닌 실제 사람들이 연출했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착용하였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앨범 사진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을 형성하는 요인에 따른 실제 헤어스타일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하며 그 시대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의 경향과 실제 사람들이 연출한 헤어스타일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헤어스타일의 변화양상

1. 시대별 변화양상

1) 1980년대

1980년대는 헤어스타일에 있어 고감도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시기로 패션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커트와 퍼머넌트 웨이브의 디자인이 다양해져 새 질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가 많이 나왔다.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폼부터 핀컬 폼, 부메랑 등 새로운 폼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스트레이트 폼이 등장하여 머리카락의 직모 상태를 강화시키고 생머리가 처지고 달라붙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였다.¹³⁾

초반에는 짧게 자른 커트머리가 많이 나타나 인기를 끌었으며 여대생이나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중반에는 퍼머넌트에 의한 곱에 싫증이 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스트레이트 폼과 긴 머리에 살짝 웨이브를 준 풀어헤친 듯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함께 유행하였다.¹⁴⁾

1986년 이후에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이 보급되면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한국여성 특유의 스타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이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발염색은 컬러 TV의 등장으로 색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스타일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사회가 다양화, 개성화되는 추세 속에서 다양한 길이의 헤어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유행하였으며 캐주얼웨어의 착용이 증가하면서 가볍게 풀어헤친 듯한 긴 머리 웨이브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폼을 한 긴 머리 스타일이 함께 유행하였다.

2) 1990년대

1990년대의 헤어스타일은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초반에는 지금까지의 심플한 라인에서 탈피하여 언밸런스한 스타일로 변형된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1960년대 복고풍으로 돌아가 크라운 부위는 둥글게 양감을 살리고 앞부분은 스트레이트한 부드럽고 낭만적인 로맨틱 보브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는 머리카락에 염색과 펴를 동시에 처리하는 코팅 펴이 등장하여 갈색, 와인색으로 염색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중반에는 복고무드에서 벗어나 도시적인 세련미와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형시킨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숏트와 미디엄의 중간 길이로 옛되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일명 맥라이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¹⁵⁾

후반에는 짧은 머리는 긴 A라인 보브 스타일과 머리카락을 층이 지게 커트한 웨지 스타일로 연출하였으며 긴 머리는 웨지 스타일로 옆선을 가볍게 커트 한 후 부드러운 웨이브의 퍼머넌트로 풍성한 여성미를 느끼도록 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9년에는 스트레이트 퍼머넌트가 꾸준히 유행하는 가운데 매직아이롱이 등장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육모 교정술이 나타났다.

모발염색은 더욱 다양해지면서 헤어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어 머리전체를 염색하는 것 뿐 아니라 모발다발을 블리치하여 각자 취향에 맞는 색깔로 염색하는 등 다양한 기법이 등장하였다.

3) 2000년대 전반기(2000-2003)

2000년대 전반기의 헤어스타일은 커트에 있어서는 끝을 날린 레이어드 커트로 밖으로 자연스럽게 뻗은 스타일이 연출되었으며 이 스타일은 히피풍의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스타일로 이어졌다. 긴 머리는 형클어진 듯 섹시한 느낌을 살리거나 변형시킨 땡은 머리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앞머리는 눈썹까지 내려오는 뱅헤어가 유행하였으며 낭만적인 디테일, 색실 등을

이용한 헤어 악세사리 등이 나타났다. 헤어컬러도 레드, 블랙, 실버, 퍼플, 골드, 브라운 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잦은 퍼머넌트와 보편화된 염색으로 인해 모발 손상이 심화되고 공해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모발케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여 모발관리 및 모발케어가 헤어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은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연출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형성요인에 따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시대의 유행경향과 실제 헤어스타일을 변화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헤어스타일의 선행연구

자신만의 취향이나 개성이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자기연출이 가능하고 변화가 쉬워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복식의 일부로써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헤어스타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역사적 고찰로 시작된 연구는 연구대상이나 주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주연, 박길순(1996)은 서구여성 사진을 중심으로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을 분석하였는데 헤어스타일의 측정요인을 머리길이, 머리폭, 머리높임으로 분류하여 직접계측을 통한 방법으로 시대별 변화양상 및 주기성을 조사하였으며 정임숙(2002)은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고 김희숙(1994)은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복식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기봉(2001)과 임석중(2002)은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며 김진숙(2002)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양의 헤어스타일이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미친 영향 관계를 알아보았

고 나수임(2001)은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을 고찰하였다.

특정 현상이나 하위문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현대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헤체 현상을 연구한 조미영(1999)의 연구와 히피와 펑크를 중심으로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을 연구한 공차숙의 연구가 있다.

또한 도주연, 권영숙(1992)은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얼굴 이미지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양숙희 등(2001)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임희정(2001)은 영동지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를 연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헤어스타일만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헤어스타일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등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선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남성에 비해 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온 여성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나 변화정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16)(17)(18)(19)(20)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는 의도되거나 연출되는 영화나 잡지 사진과는 달리 실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연출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의 자료라 할 수 있는 대학교 졸업앨범사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졸업앨범은 문화나 유행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위치라 할 수 있는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본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1년까지는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의류학과 여대생의 졸업사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졸업사진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는데 시기를 1980년 이후로 한 것은 1980년 이후로 개인의 취향이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다양한 스타일이 출현하여 헤어스타일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는데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정하였다. 헤어스타일을 구분할 수 없는 학사모 착용사진은 제외하고 자유복을 착용하고 있는 개인 사진을 중심으로 졸업앨범이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1981년, 1983년, 1987년을 제외하고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의류학과 졸업앨범 사진을 모두 표집하여 표집된 총 966장 중 남학생 사진 20장을 제외하고 총 946장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먼저,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헤어스타일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헤어스타일을 이루는 유형들을 추출한 후 양적인 연구 방법인 빈도분석을 통해 유형에 따른 실제 헤어스타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시대별 헤어스타일 경향과 실제 헤어스타일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헤어스타일의 유형

본 연구는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헤어스타일을 분류한 방식을 참고하여 헤어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는 유형들을 추출한 후 추출된 유형에 따라 졸업사진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도주연(1992)²¹⁾의 연구에서는 최근의 문헌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수집하여 헤어스타일 유형을 머리상태, 머리길이, 앞머리 유무, 가리마 위치로 나누어 10가지의 헤어스타일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머리길이의 경우에 중간머리는 귀 밑 3~4cm 길이로 하였으며 긴 머리는 어깨 길이로 정하였다.

양숙희의 5인(2001)²²⁾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 층이 있는 긴 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 짧은 커트머리, 올림머리 등 5가지로 분류하여 헤어스타일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주연(1996)²³⁾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의 측정요인을 머리 길이, 머리폭, 머리높임으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조사하였다.

임희정(2001)²⁴⁾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길이, 퍼머넌트 유무, 염색유무, 선호색상, 바꾸고 싶은 형태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길이의 경우 짧은 커트형, 단발형, 어깨길이, 그 이상 긴 머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김양휴(1996)²⁵⁾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의 길이를 짧은 커트형, 단발형, 어깨선길이, 그 이상의 긴 머리의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퍼머넌트의 유무나, 염·탈색의 유무를 통해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의 유형을 머리상태, 머리길이, 앞머리 유무, 가리마 위치, 염색유무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머리상태는 직모(스트레이트)와 켈로 나누고 머리길이는 짧은 머리(짧은 커트머리), 단발머리, 층이 없는 긴머리, 층이 있는 긴머리로 나누어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머리 유무는 앞머리를 뒤로 넘긴 머리와 세워서 앞으로 내린 머리,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머리로 나누고, 가리마의 위치는 가리마가 없는 머리, 오른쪽 가리마, 왼쪽 가리마, 가운데 가리마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요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분석요인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시대별 헤어스타일의 경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실제 헤어스타일의 형성요인에 따른 변화

헤어스타일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온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시대를 1980년대 전반기, 1980년대 후반기, 1990년대 전반기, 1990년대 후반기, 2000년대 전반기로 나누어 헤어스타일 형성요인에 따라 변천양상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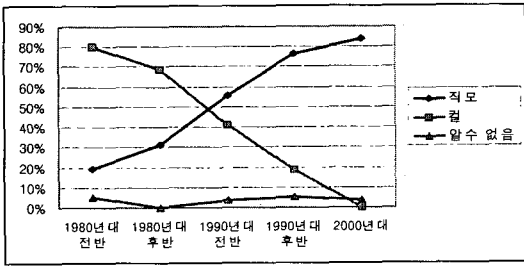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10년을 하나의 주기로 보았을 때 전반과 후반에 따라 새로운 펌이나 스타일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10년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그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전반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1980년대 후반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로 나누었으며 1990년대 전반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990년대 후반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로 나누었다. 또한 2000년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염색 유무의 경우 칼라가 시작된 연도부터 시작하여야 하므로 1984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았다.

<표 1> 헤어스타일 분석 요인

헤어스타일 유형	분류 방법			
	직모(스트레이트)		켈	
머리 상태				
머리 길이	짧은 머리(커트)	단발머리	층이 없는 긴머리	층이 있는 긴머리
앞머리 유무	뒤로 넘긴 스타일	세워서 앞으로 내린 스타일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스타일	
가리마 위치	가리마가 없는 머리	오른쪽 가리마	왼쪽 가리마	가운데 가리마
염색 유무	염색 유		염색 무	알 수 없음

1) 머리상태에 따른 변화양상

헤어스타일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머리상태를 직모와 컬로 나누고 머리를 묶거나 올려 머리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스타일을 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컬이 없는 직모는 1980년대 전반에서 2000년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컬이 있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변화양상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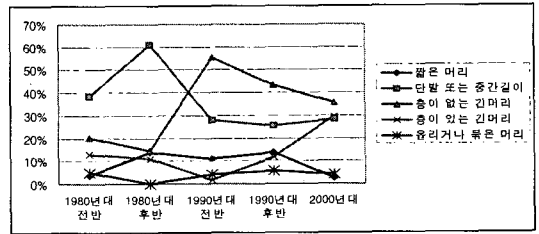


<그림 1> 머리상태에 따른 변화양상

1980년대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개인의 취향이 다양화, 개성화된 시기로 헤어스타일 분야에서도 핀컬 퍼머, 부메랑 퍼머 등 새로운 스타일의 퍼머가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퍼머가 시도되어 자신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컬의 강세는 1980년대 중반에 스트레이트 퍼머가 등장하고 다양한 컬에 의한 헤어 연출에 식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스트레이트 퍼머를 한 스타일이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1990년대에 퍼머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컬이 없는 스트레이트 퍼머를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세를 보이여 퍼머보다는 커트를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퍼머도 과거와 달리 컬을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 머리길이에 따른 변화양상

시대별 헤어스타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머리길이를 짧은 머리, 단발 또는 중간 길이, 층이 없는 긴 머리, 층이 있는 긴 머리, 올리거나 묶은 머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중간길이의 경우는 귀밑에서 어깨까지의 길이로 보았고 긴머리의 경우는 어깨이상의 길이로 보았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머리길이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 전 후반에 걸쳐 강세를 보였던 단발 또는 중간 길이의 머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긴 머리 스타일로 변화되었으며 긴 머리 스타일이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헤어스타일로서 자리 잡았으나 층이 없어 단조로웠던 스타일을 탈피하여 층이 있는 긴 머리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짧은 머리길이나 올리거나 묶은 스타일은 시대의 변화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화양상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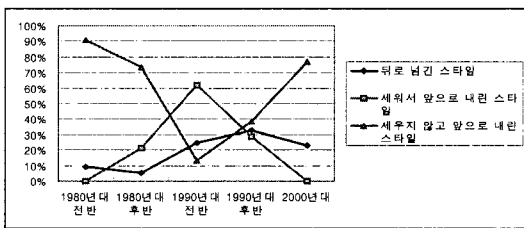
<그림 2> 머리길이에 따른 변화양상

1983년에 교복자유화가 실시됨으로써 청소년들 사이에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패션분야는 다양한 스타일이 시도되었다. 헤어스타일에서도 새로운 펌의 등장으로 컬이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특히 단발 머리의 보브 스타일에 단조로움을 커버하는 내추럴 펌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이러한 스타일의 유행은 긴 머리 스타일보다는 단발 또는 중간 길이 스타일의 유행을 이끌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펌이 등장하고 이 펌을 이용하여 깔끔한 스타일이 제시되면서 긴 머리 스타일이 유행

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긴 머리 스타일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증가되면서 커트기법을 이용하여 긴 머리 스타일에 층을 주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길이의 스타일이 시도되어 중간 길이와 층이 없는 긴 길이, 층이 있는 긴 길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앞머리 상태에 따른 변화양상

헤어스타일의 형성요인 중 하나인 앞머리 상태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머리 상태를 뒤로 넘긴 스타일, 세워서 앞으로 내린 스타일,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스타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앞머리를 세워서 앞으로 내린 스타일은 특정 시기인 1990년대 전반에만 유행한 반면 앞머리를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스타일은 1990년대 전반을 제외하고 전 시기에 걸쳐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뒤로 넘긴 스타일은 전 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 변화양상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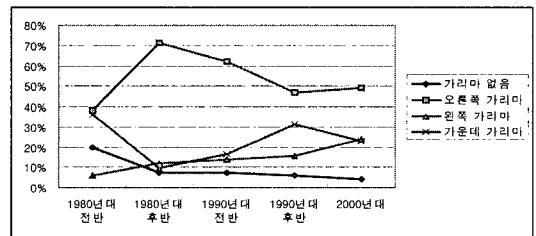
<그림 3> 앞머리 상태에 따른 변화양상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유행했던 스타일로 평가되는 스타일 중 하나인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전반에 가장 정점을 이루었다. 컬의 유무나 머리길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헤어스타일의 앞머리 처리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서양인과 같이 커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사료 된다.

이와 같이 세워서 앞으로 내린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1990년대 전반을 제외하고는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스타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복고풍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그 비율이 높았으며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에도 계속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가리마 위치에 따른 변화양상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리마 위치를 가리마 없음, 오른쪽 가리마, 왼쪽 가리마, 가운데 가리마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다음 <그림 4>와 같은 변화를 보였다. 오른쪽 가리마가 전 시대에 걸쳐 강세를 보인 가운데 1980년대 전반에 다양한 펴미 시도되면서 가운데 가리마가 오른쪽 가리마와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에 감소되다가 스트레이트 펴미의 꾸준한 인기로 긴 머리 스타일이 증가하면서 찰랑거리는 스타일을 잘 연출할 수 있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가리마가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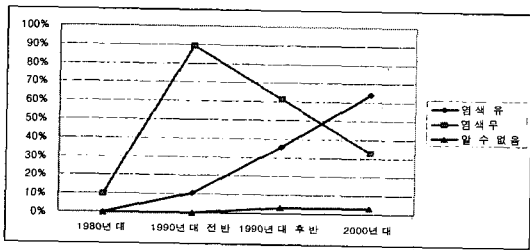


<그림 4> 가리마 위치에 따른 변화양상

1980년대 전반에는 헤어의 형태를 고정시키거나 스타일을 보정 해주는 스타일링 제품이 부족하여 펴미 한 상태이거나 컬이 없는 직모 상태 모두 자신의 스타일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출하였기 때문에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오른쪽 가리마와 함께 가운데 가리마가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펴미 한 사람들이 가운데 가리마를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펴미에 의한 부피감을 잘 분배하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5) 염색 유무에 따른 변화 양상

1990년대 들어서면서 헤어스타일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헤어염색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칼라 사진이 게재되기 시작한 년도를 기점으로 그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대에 따라 변화를 나타냈다. 1980년대에는 백모염색을 제외하고 일반 멋내기 염색이 보편적으로 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을 한 모발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전·중반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헤어염색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변화양상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염색 유무에 따른 변화양상

1990년대 전반에 코팅 펴미 등장하면서 펴미와 염색이 동시에 시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헤어염색은 영구적인 염색이라 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사라지고 다양한 색상의 연출이 불가능하였다. 펴미를 하면서 간편하게 시술되었던 헤어염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헤어를 염색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0대에서부터 60·70대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보편화,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헤어 연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염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염색한 사람과 염색하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색상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자연그대로 모발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

람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시대별 유행경향과 실제 헤어스타일과의 비교

시대별 헤어스타일 경향과 졸업사진에 나타난 실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하여 실제로 여대생들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연출했는지 살펴본 결과 1980년대 전반에는 다양한 펴미 등장하여 컬이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는 시대별 유행경향과 일치하게 컬이 있는 단발 또는 중간 길이의 헤어스타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머리는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부재를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스트레이트 펴미 등장하면서 컬이 있는 스타일과 함께 차분한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 여대생들도 컬이 있는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비율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시판으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은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웨이브를 한 스타일이 공존한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실제 여대생들의 머리상태도 컬이 있는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코팅 펴미 등장하면서 펴미와 염색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실제 여대생들도 1980년대에 거의 전무하던 염색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앞머리 세우는 스타일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인 만큼 여대생들도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세운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여전히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직아이롱이 등장하여 찰랑거리는 스타일을 창출하였는데 이와 동일하게 여대생들도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선호되어 실제 여대생들도 층이 없는 스트레이트 스타

타일에 약간의 층을 주어 단정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한 만큼 앞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게 연출되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는 전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실루엣이 트렌드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여대생들도 계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해 온 긴 머리 스타일을 층이 없게 하거나 층이 있게 하여 연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헤어컬러가 등장하고 헤어염색이 보편화되는 유행현상을 보인 것과 같이 여대생들의 경우도 염색을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대별 헤어의 유행경향과 실제 여대생의 헤어스타일 변화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문헌에 제시되었던 모든 스타일이 실제적으로 여대생들에 의해 연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여대생들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선도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에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악세사리의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토탈패션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헤어스타일은 형태나 칼라에 따라 개인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복보다는 변화가 쉽고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복식문화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헤어스타일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졸업앨범 사진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유행경향과 실제 여대생이 연출했던 헤어스타일을 비교·분석하였다.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분석한 결과 헤어스타일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기구의 등장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펌이 등장한 시기에는 컬을 한 여대생이 많았으며 새로운 펌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펌이나 매직 아이롱이 등장한 시기에는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헤어스타일링 제품이 시판되고 외국과의 교류로 세계화되면서 미의식이 변화되어 그 영향으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다양화, 개성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헤어의 형태적인 측면 외에 컬러적인 측면의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염색제가 개발되면서 헤어염색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여대생들에게도 헤어염색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식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하나의 문화요소로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형태적인 측면 뿐 아니라 헤어염색의 등장으로 시각적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대생이 실제로 연출하였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졸업사진을 연구의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졸업이라는 특정 상황에 의해 연출되었을지라도 실제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분석결과가 실질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의 졸업사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정 학과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비슷한 타 학과를 선정하여 두 학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여대생의 헤어스타일이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 헤어스타일에 한정하지 않고 의복이나 다른 요인을 가미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연구, 일조각, p. 29.
- 1) 김희숙 (1994). 20세기 서구 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 313~331.
- 2) 손명임, 김진구 (1990).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연구. 복식, 14, pp. 145~165.
- 3) 박길순, 서희영(1991).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변천양상-1953년부터 1988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생활과학연구지, 4(1), pp. 17~36.
- 4) 임숙자, 류은정, 박혜원 (1994).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100년 변천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2), pp. 203~223.
- 5) 나수임 (2001).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199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나경 (1998).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길순, 이주연 (1996).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pp. 383~394.
- 8) 정임숙 (2002).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은영자, 최윤혜, 형승희 (2001). 대구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Ⅲ)- 1946년 이후의 약세사리, 피부미용 및 머리모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2), pp. 235~249.
- 10) 공차숙 (2001). 하위문화에 나타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연구 - 히피와 펑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기봉 (2001). 현대 패션경향과 헤어스타일의 관련성 연구(1990년대 중심으로). 주성대학 논문집, 10, pp. 245~256.
- 12) 임석중 (2002). 패션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연구-1920년대 이후 패션과 헤어 컷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정봉자 (2003). 20세기 헤어스타일 형상에 영향을 준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14) 나윤영 (2002).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190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8.
- 15) 이나경 (1998). 앞의 책, p. 19.
- 16) 양숙희외 5인 (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태도와 관련 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6, pp. 193~215.
- 17) 임희정 (2001). 대학생들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 및 변화에 관한 연구-영동지역 여대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8.
- 18) 고영숙 (2003). 헤어칼라가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헤어칼라 선호도와외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8~60.
- 19) 양숙희외 5인 (2001). 앞의 책, p. 204.
- 20) 신호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4.
- 21) 도주연, 권영숙 (1992).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3), pp. 243~250.
- 22) 양숙희외 5인 (2001). 앞의 책, pp. 193~215.
- 23) 박길순, 이주연 (1996). 앞의 책, pp. 383~394.
- 24) 임희정 (2001). 앞의 책, p. 21.
- 25) 김양휴 (1996).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6.